

삶의 질로서 공간의 유형화와 공동체

최 병 두*

Spatial Characterization of the Quality of Life and Community

Choi Byung-Doo*

요약 : 삶의 질을 구성하는 사회공간적 요소들은 현실 세계의 각 영역들, 즉 물질적, 생태적, 상징적 영역들에 상응하는 입지, 환경, 장소라는 3가지 개념들로 범주화될 수 있다. 이들은 삶의 질의 구체적 내용들, 즉 기본수요에의 접근, 생태적 안전의 보장, 그리고 공동체적 정체성의 확보와 관련된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이 '삶의 질'을 위한 공간을 3가지 영역으로 유형화하고, 이의 구체적 지표들을 설정하여, 대구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본 논문은 이러한 3가지 사회공간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공동체의 개념을 제시하고, 삶의 질을 고양시키기 위한 공동체적 생활정치를 강조한다.

주요어 : 삶의 질, 입지, 환경, 장소, 공동체, 생활정치

Abstract : Socio-spatial components of 'quality of life'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aspects of spatial concepts, that is, location, environment, and place, which correspond to three fields of reality, that is the material, the ecological, and the symbolic. Moreover, these sets of concepts and fields are related to three concrete contents of 'quality of life', that is, access to basic needs, assurance of ecological security, and community of cultural identity.

This paper describes a categorization of these three interrelated sets of spatial concepts, of aspects of reality, and of concrete contents of 'quality of life', then, tries to develop and apply new indicators in relation with them, to recognition of citizens of Taegu on 'quality of life', with a questionnaire method. This paper also suggests a conceptualization of community as a synthesis of these three sets of socio-spatial components, and emphasizes 'politics of life' in such a community to improve 'quality of life'.

key Words : quality of life, location, environment, place, community, politics of life

1. 서론

그 동안 우리 사회의 급속한 경제발전은 상당한 사회적 부를 누적시키면서 최소한 가시적으로라도 개인들의 경제적 기본 욕구를 충족시킨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성장은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 및 환경적 문제들을 유발하면서 삶의 질에 관한 일반 시민들의 관심과 우려를 자아내었다. 즉 이러한 경제성장과 이에 부수된 여러 가지 문제들은 우리의 삶을 경제적 지표들로만 평가하고 계획하고자 했던 기존의 노력들을 전환시켜 사회문화적 및 생태환경적 지표를 포괄하는 보다 종합적 관점에서 삶의 질을 추구하도

록 했다.

물론 최근 IMF 구제금융을 요청할 정도로 심각했던 경제위기는 정부나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경제적 측면에 다시금 관심을 가지도록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실제 가장 큰 피해를 전가 받은 부분은 경제 그 자체라기 보다는 중간층 이하 시민들의 삶의 질을 퇴락시키는 사회·환경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최병두, 1999c). 이러한 사실은 산업구조조정을 명분으로 한 대량실업 및 소득감소와 이에 따른 교육비 및 의료보장이나 문화생활을 위한 지출의 감소 그리고 가족의 해체와 사회적 의욕 상실 등에서 확인될 수 있다. 또한 이 점은 정부가 경기회복을 명분으로, 장기적으로 사회환경문제를 유발할 수 있

* 대구대학교 사회교육학부 지리교육전공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Taegu University)

는 부동산시장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사회문화적 및 생태환경적 측면에서의 삶의 질에 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요청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그 동안 삶의 질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좁은 의미의 사회적 측면에 한정되었고, 삶의 질에 내포된 공간적 측면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인간의 삶은 기본적으로 공간 위에서 이루어지며, 이러한 공간은 인간 생활의 터전으로서 이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적 및 정신적 배경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공간은 삶의 질에 관한 연구에서 중요한 내용을 가질 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공동체적 삶의 기반을 형성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삶의 질 개념에 내재된 공간성의 구체적 내용은 몇 가지 유형, 즉 입지, 환경, 장소로 나누어질 수 있다. 여기서, 입지, 환경, 장소가 각각 가지는 내용들은 본문 속에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되겠지만, 여기서는 일단 이들이 지리학의 주요한 주제들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즉 삶의 질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는 단지 삶의 질의 지역간 격차와 같이 단위 지역으로 분리된 사회(주민)들의 삶의 질에 관한 비교 연구와 같은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로서 공간을 다루어야 한다는 점이다. 나아가 이러한 공간적 요소들은 함께 종합되어 지역사회를 구성하며, 삶의 질을 위한 지역사회의 발전은 궁극적으로 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는 점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 달리 말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결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생활정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적 및 이론적 문제에 대한 관심에서, 본 연구는 삶의 질에 내재된 공간적 성격을 체계적으로 범주화하여, 이를 실제 지역 주민들의 경험적 인식 속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나아가 이러한 공간적 요소들의 총화로서 공동체 구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자 하는 생활정치의 의미를 제시하고자 한다.¹⁾ 이를 위해, 본 논문은 (1) 삶의 질을 구성하는 공간적 요소로서 입지, 환경, 장소와 삶의 질과의 관계를 개념적으로 고찰하고, (2) 이러한 각 공간적 요소들을 대변하는 구체적 지표들을 설정하여 대구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을 분석하고, (3) 이러한 개념적 및 경험적 분석을 토대로 공간적 요소들의 종합으로서 공동체의 의미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삶의 질의 공간적 요소

공간은 인간의 일상생활이 영위되는 터전이고, 사회의 발전과정이 이루어지는 기반이다. 이러한 공간 개념은 누구에게나 잘 인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서구) 근대 의식의 형성 이후 공간은 이와 같은 사회적, 실천적, 구체적 공간이 아니라, 인간의 행동이나 사물들과 괴리된 기하학적, 선형적, 추상적 공간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르페브르(Lefebvre, 1991)는, 서구적 의식에서 공간은 자연적 공간에서, 절대적 공간으로, 그리고 다시 추상적 공간으로의 전환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또한 기든스(Giddens, 1991)에 의하면, 근대성(modernity)의 전개과정으로서 이와 같은 구체적 사실 및 사물로부터 공간의 추상화 과정은 '공간과 시간의 비우기'(emptying of space and time)로 개념화된다. 이러한 점에서, 공간의 추상적 개념 형성은 근대 사회의 발전과정에 내재된 어떤 속성, 즉 근대 사회가 복잡한 상호관계를 가지고 팽창하면서, 일상적 생활이나 구체적 사물들과는 점차 유리(물신화)되고 추상화(신비화)되는 과정과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러나 공간은 결코 텅빈 기하학적 공간이거나 경험과 유리된 채 선형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며, 항상 구체적 일상 생활과 생산 과정을 통해 형성되고 재형성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공간은 사회에 대해 단지 수동적으로 반응하기 보다는 능동적으로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매체가 된다. 즉 공간은 사회적 과정을 통해 생산되고 재생산되지만, 또한 동시에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실천의 장소로서 그 사회의 경제-정치구조를 변화시켜 나간다. 이와 같이, 공간은 사회적 활동을 통해 형성·재형성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활동을 추동시켜 나가는 능동적 매체가 된다는 점에서, 공간은 '사회적 공간'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뿐만 아니라 공간은 사회와 분리된 어떤 실체가 아니라, 모든 사회적 생활, 사물들과 사건들은 공간적 축

면을 가진다는 점에서 그 '공간성'(spatiality)이 강조된다.

이러한 점에서, 공간(그리고 시간)의 개념은 특히 최근 사회·인문과학적 담론에서 매우 주요한 주제가 되었지만, 공간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연구자들 간에도 아직 이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형화된 개념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보다 많은 학자들이 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예로, 제임슨(Jameson, 1991)에 의하면, "오늘날 우리의 일상적 생활, 정신적 경험, 문화적 언어 등은 시간의 범주들이라기 보다는 공간의 범주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최소한 경험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또한 푸코(Foucault, 1986)는 "우리 시대의 불안은 근본적으로 공간과 관련을 맺고 있다. 의심할 여지없이 시간과의 관련보다 공간과의 관련이 더 크다"고 강조한다. 이와 같이, 지리학의 영역을 벗어나 사회과학 일반에서 공간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과 이에 기초한 연구들이 최근 많이 제시되고 있다.²⁾ 그러나 공간(그리고 시간)에 관한 이러한 관심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매시(Massey, 1992)는 이들의 연구나 주장에서 공간이 체계적으로 고찰되거나 개념화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이와 같은 공간의 개념화와 관련된 문제들 가운데 하나는 공간 개념의 재구성성을 위하여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공간적 용어들을 범주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학문세계 및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많은 공간적 용어들 가운데 공간 개념을 유형적으로 범주화시켜 줄 수 있는 용어로서, 입지, 환경, 장소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범주화는 사이몬슨(Simonsen, 1996)이 제시한 공간의 3가지 유형, 즉 '사회적 공간성으로서의 공간', '물질적 환경으로서의 공간' 그리고 '차이로서의 공간'과 유사하다. 이러한 공간 구분은 범주화를 의도하지 않는 다른 지리학 관련 연구에서도 흔히 함의되어 있다. 예를 들어, 하비(Harvey, 1996)는 다양한 공간적 용어들이 결국 '공간, 환

경(자연), 장소' 등 3가지 개념들로 수렴될 수 있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³⁾

이 3가지 용어들은 '공간'이라는 용어와 흔히 혼용되어 사용되거나 또는 이와는 별도의 개념으로 구분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이 용어들은 모두 넓은 의미의 공간 개념에 포괄될 수 있으며 따라서 사회공간의 구성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서로 구분되어 사용될 필요가 있는 범주들이다. 왜냐하면 이 3가지 용어들은 현실 세계를 구성하는 영역들, 즉 물질적(경제·정치적), 생태적(자연환경적), 상징적(사회문화적) 영역들과 상응하며, 특히 이들은 '삶의 질'을 구성하는 3가지 주요 측면들, 즉 생활에 필요한 기본수요의 충족, 생활·생태적 측면에서 존재론적 안전의 보장, 그리고 자아실현을 위한 정체성 확보와 각각 관련되는 것으로 개념지울 수 있기 때문이다(표 1).

'입지'는 다양한 인간 활동이나 시설들이 공간의 일부를 점유하고 이에 위치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입지의 개념은 특히 경제적 및 공공적 측면에서의 공간적 시설이나 활동과 관련되며⁴⁾, 또한 이러한 시설·활동들 간의 공간적 체계, 이를 이용하기 위한 접근성 등의 의미를 함의한다. 즉 입지는 자연환경으로부터 인간 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채취하는 활동, 채취된 원료와 연료를 노동력과 결합시켜 상품을 생산하는 활동, 생산된 상품들을 시장으로 운송하여 교환·분배·소비하는 활동, 그리고 최근에는 이러한 분배·소비활동의 결과로 배출되는 폐기물의 처리 활동이나 이와 관련된 시설들의 위치 그 자체 또는 이와 관련된 활동을 의미한다. 또한 입지의 개념은 이와 같은 경제적 활동 외에도 행정, 치안 등 공공적인 활동 및 이와 관련된 시설들의 위치를 뜻하며, 주거, 교통, 교육, 의료보건, 문화위락시설들(즉 이른바 집합적 소비재)이나 이와 관련된 사회공간적 활동들의 위치를 포괄한다. 이러한 활동이나 시설들은 인간생활에 기본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따라서 입지는 사회공간적 복지 또

표 1. 삶의 질의 공간적 구성 요소들

공간적 구성요소	입지	환경	장소
현실세계의 구성영역	물질적(경제, 정치적)	생태적(자연환경적)	상징적(사회, 문화적)
삶의 질의 측면	기본수요의 충족	존재론적 안전 보장	귀속감·정체성 확보

는 '삶의 질'의 제 측면들 가운데 물질적 기본 수요의 충족과 관련될 수 있다(Smith, 1977).

입지와 관련된 사회경제적 활동들과 시설들은 그 자체적으로 적합한 입지의 구성요소들(예로, 노동집약적 섬유산업은 값싼 노동력이 풍부한 곳에 입지하고자 함)을 필요로 하는 한편, 지표 상에 지리적으로 주어진 개별 위치(site)들 또는 지역들은 자연적, 역사적, 사회적으로 상이한 입지 환경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개별 활동이나 시설들은 최적 입지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 특정 위치에 입지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관한 연구는 그 동안 전통적 지리학 및 공간과학에서 주류를 이루어왔다. 그러나 최근 입지에 관한 연구는 개별 산업과 특정 입지 간의 상호관련성에 초점을 둔 입지의 수익-비용분석 또는 최적입지 분석 등을 넘어서서, 입지의 차별화, 입지로 인한 외부효과, 입지들 간의 관련체계 등에 관한 분석으로 나아가고 있다.

개별 입지는 공간상의 한 위치를 점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접근성은 거리(물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시간거리 또는 화폐로 환산되는 비용거리)에 따라 상이하다. 뿐만 아니라 어떤 입지에의 접근성은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능력과 정치권력적 지위에 따라 상이하며, 따라서 이러한 입지의 이용을 통해 기본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개인들이나 계층들 간에 차별성이 형성된다. 이러한 연구의 대표적인 사례로, 하비(Harvey, 1973)는 접근성의 차이에 따라 실질소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설명하고자 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시장메카니즘에 의해 배분되는 이러한 입지들의 접근성의 차별화 또는 불균등은 사회공간적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었으며, 이러한 차별성의 해소는 국가정책의 주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입지와 관련된 문제는 또한 대부분의 활동이나 시설들의 경제적 및 공공적 입지가 다양한 유형의 정적(正的) 또는 부정(負的) '외부효과'들을 유발한다는 점에서도 발생한다. 특히 경제적 활동과 그 시설들의 보다 유리한 입지 집중은 관련된 기업가들에게 생산비 및 운송비의 절감을 통해 더 큰 이윤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재화와 서비스의 불평등한 배분을 야기하는 입지의

불균등은 이에 대한 접근의 차별성으로 인해 그 자체로서 사회·공간적 갈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입지 개발로 초래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유발한다. 특히 입지 개발의 부적 외부효과로 발생하는 환경파괴·오염은 그 자체로서 심각한 지역환경문제일 뿐만 아니라, 때로 인접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전가함으로써 사회공간적 갈등을 초래하고, 나아가 새로운 입지를 제약하는 주요 조건이 되고 있다.

입지들 간의 관계 및 이에 따른 공간 편성의 변화과정은 보다 복잡한 사회공간적 문제를 야기한다. 산업활동이나 시설들의 입지와 그 변화는 개별 시설의 입지 요건이나 지역의 입지 특성에 의해 완전히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나아가 세계적 차원에서의 다른 입지들과의 관계, 또는 첨단기술의 발달이나 생산체계의 변화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 특히 최근 국가 및 세계 경제에 있어서의 산업 재구조화 과정(즉 유연적 축적체계로의 변화)은 기존의 입지들을 도태시키고 새로운 입지들을 창출시키고 있다. 그러나 한 지역 사회에서 산업의 재구조화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도시)공간의 재구조화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입지의 재편은 접근성의 사회공간적 변동에 따른 갈등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새로운 실업의 발생과 노동조건 악화, 또는 주택의 철거나 주거조건 악화 등을 유발하면서 새로운 도시 빈민 또는 이른바 '하위계급'(underclass)을 만들어내고 있다.

환경은 인간의 의식과 행위를 조건지우며 이에 의해 변화해 가는 외적 조건들의 총체 또는 각 측면들(예로, 자연환경, 인문환경 등)을 의미한다. 물론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문제시되는 측면은 자연환경으로, 이의 구성요소들은 각기 분리된 것이 아니라 먹이사슬이나 에너지의 흐름 등을 통해 연결된 하나의 체계, 즉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생태계는 그 구성요소들에 따라 일정한 부담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또한 부분적으로 파괴·오염될 경우 재생될 수 있는 자정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생태계의 개념은 환경이 단순히 자연생태환경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생활 및 사회발전, 특히 과학기술 및 생산력의 발달과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조응하면서 변화해

간다는 점을 함의한다. 또한 여기서 자연환경의 구성요소들은 동식물이나 무생물뿐만 아니라 인간까지도 포함하며, 특히 인간은 생태계의 한 구성요소로서 그 파괴의 원인자일 뿐만 아니라 이를 벗어나서는 살아 갈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된다.⁵⁾

이러한 환경은 인간의 물질적 생존에 가장 기본적인 공기, 물, 식량 등을 제공해 주며, 또한 자연적으로 주어진 상징적 경관으로서 인간 생활의 심미감을 고양시킨다는 점에서, 적합한 환경의 확보는 물질적으로 또한 상징적으로 환경적 또는 '존재론적' 안전감을 가져다 준다.⁶⁾ 그리고 환경은 생산과 생활을 위한 공장 및 주거시설들의 터전이 되며, 또한 원료와 에너지를 공급하고 폐기물의 처리를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역할로 인한 환경의 파괴·오염은 인간의 사회경제적 생활과 생산뿐만 아니라 생존 자체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위협' 또는 '불안' 요소가 되고 있으며(Beck, 1994, 1995), 이러한 요소들의 제거를 통한 안전감의 보장은 국가의 새로운 정당성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Hay, 1994).

오늘날 우리 사회가 당면한 환경문제는 물질문명의 발달, 특히 자본주의적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자본축적의 메카니즘에 의해 추동되는 급속한 경제성장과정은 절대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생태계에 대하여 더 많은 자원의 소모와 더 많은 폐기물의 배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 동안 환경문제에 관한 연구는 주로 자연과학 및 공학의 분야에서 발생한 개별 환경오염문제들에 초점을 두고 이들의 처리 또는 해결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자연환경의 파괴·오염에 관한 분석은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환경문제는 이러한 분석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왜냐 하면 오늘날 심화되고 있는 환경위기 또는 환경적 불안의 고조는 자연환경 그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 사회적 문제, 나아가 서구 근대성 추진의 산물로서 인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환경문제에 관한 재인식은 환경파괴와 오염의 현상들뿐만 아니라 이를 유발하는 사회경제적 메카니즘에 관한 연구도 요구한다. 예를 들어, 환경문제 자체는 사회적 계층들에 무관하게 공간적으로 동일한 영향을 주는 것 처럼 보이지

만, 그 피해를 방어하고 안전감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은 계층적으로 지역적으로 상이하다는 점에서 환경문제의 사회공간적 불평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Bullard, 1994; 최병두, 1995, 1999). 또한 환경문제의 발생과정과 그 해결방안들에 대한 고찰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생태적 근대화' 등 새로운 발전패러다임이 제시되고 있으며(이정전, 1995a; 문순홍, 1995; Hajer, 1995), 지구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국지적 차원에서 다양한 대응전략과 대안들이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문제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는 우리 사회의 경제·정치적 메카니즘에 내재된 문제성의 해소 또는 근대성의 전개에 대한 성찰에서 나아가 대안적 공동체 사회의 모색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한국불교환경교육원, 1998).

장소란 우리들의 일상생활이 영위되는 구체적 공간으로, 그 속에서 (대면적) 사회적 관계가 형성될 뿐만 아니라 일상적 의미가 부여되고 또한 추구되는 곳이다. 즉 장소는 생활세계에서 당위적으로 주어진 지식과 구체적 실천을 통해 형성되며, 생활된 체험을 통해 인지되고, 또한 친밀감이나 기피감과 같은 감정이 부여되며 상징적으로 의미화(또는 재현)된다. 이러한 점에서, 특정 장소에서의 생활을 통해 얻게 되고 또한 그 장소에 부여하는 '장소감', 행위자들의 일상생활 및 경험체계와 정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장소성'(placeness) 등의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Relph, 1976; Ley and Samuels, 1979). 특히 우리의 일상적 지식과 실천은 장소에 근거할 뿐만 아니라, 일상적 감정과 정서, 친밀성과 신뢰, 안전과 안정감은 장소에 귀속(또는 뿌리내림)된다는 점에서 '장소 귀속감' 또는 장소 '정체성'이 강조된다.⁷⁾ 즉 장소는 개인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의미가 갖든 일정한 경계가 있는 현상으로서, 정체성이 형성, 유지, 변형되는 의미있는 틀을 제공한다.⁸⁾

장소에 관한 연구들은 공간에 관한 기존 연구들이 일상 생활공간에서의 인간의 이성이나 감정, 구체적 실천과 경험의 문제를 무시했음을 비판하고, 이에 대한 대안적 개념으로 장소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장소는 구체적 경험 및 일상적 생활과 관련된 '특수성'을 가지며, 일반적 관계를 나타내는 '공간'의 개념과 흔히 (개념적으로 뿐만 아니

라 역사적) 분리된다(Harvey, 1992). 이러한 장소에 관한 연구는 역사적으로 서구 근대화과정에서 급속하게 진행된 '시-공간적 압축' (time-space compression)으로 인해, 장소의 파괴 또는 소멸 그리고 탈구속화가 급속하게 촉진되고 장소 정체성이 상실되게 되었음을 지적한다.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이제 지역(국가)간 거리를 초월한 초이동적 다국적자본의 침투와 대중전자매체를 통한 획일적 서구 상품문화의 확산으로 그 특수성을 잠식당하고, 이로 인해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었던 힘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⁹⁾

뿐만 아니라, 최근 서구 선진국가들에서는 도시 활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장소 자체의 상품화가 촉진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일부 지방정부들이 지역발전의 한 방편으로 이러한 유형의 개발을 모색하고 있다. 장소 판매 또는 '장소 마케팅'으로 불리는 이 전략은 각 지역의 특성있는 경관뿐 아니라 전통적 문화와 역사적 유물 그리고 고유한 민속 등을 장소성과 관련시켜 창출 또는 재현하고, 이를 판매하고자 한다(구동희, 1997; 이무용, 1997; Kearns and Philo, 1993). 이러한 전략은 단위 경관이나 개별 시설, 유물, 민속에서 나아가 도시 전체를 하나의 복합적 상품으로 이미지화될 수 있도록 판촉한다는 점에서 '도시마케팅'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이 전략은 도시의 경제를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장소가 가지는 고유한 특성과 이미지에 기초하여 도시인의 정체성과 통합을 회복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강조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의 이면에는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자본 및 이들과 결합하여 자신의 지지기반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치권력이 존재하며¹⁰⁾, 장소와 관련하여 재현된 정체성은 이들에 의해 체계적으로 왜곡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장소의 개념은 이러한

정체성의 상실에 관한 비판적 대안으로 재구성되고 있으며, '장소의 정치' 또는 '정체성의 정치'가 강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장소에 관한 연구는 포스트모던 철학 및 사회이론과 결합하면서 새로운 의미들을 추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장소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는 공간이 만들어내는 차이, 또는 장소가 가지는 특수성에 기초하여 '차이' (difference)와 '타자' (other)에 대한 이해를 강조한다(Soja and Hooper, 1993; Duncan, 1993; Genocchio, 1995). 장소에 근거한 '차이'는 한편으로 지배적 권력에 의해 생산되고 재생산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 이러한 차이에 대한 주장은 근대화 과정에서 파편화되고 탈중심화된 주체의 회복과 더불어 타자와 그들의 공간(또는 장소)에 대한 인정과 올바른 인식을 강조하는데 기여한다.

그러나 장소의 정치와 차이 또는 타자(성)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또 다른 측면에서 강조되어야 할 점은 이들에 관한 고찰이 질실하게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또한 동시에 장소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어떤 위험, 즉 정체성 조작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장소 귀속을 위한 실천은 장소감의 의도적 배양과 구분되어야 한다. 특히 '장소 마케팅' 전략에서 처럼 장소감의 의도적 배양(즉 장소 정체성의 조작)을 통해 특정 경제적 또는 정치적 집단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장소에 뿌리를 둔 이해를 결집하고자 할 수 있다.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투안(Tuan, 1977)은 장소에 뿌리내림이 장소감을 지니고 배양하는 것과는 다른 유형의 경험을 주장한다. 즉 "진정으로 뿌리내린 공동체는 성당과 기념비를 가질 수 있다. 그렇지만 과거를 보존하기 위해 박물관을 짓거나 모임을 만들지는 않는다". 하비(1995)도 이

표 2. 삶의 질을 구성하는 사회공간적 요소들과 지표

요소	비공간적 요소	입지(시설)	생활·생태환경	장소(사회·문화)
지표	식구·친척 화목 식구 건강	직장안정, 높은소득 행정서비스 병의원 시설 각종 복지시설 시장에의 접근성 정보(시설) 접근성	주택 사정 교육 여건 여가 생활 교통 편리 범죄 없음 깨끗한 자연환경	이웃과의 유대 친구·친지 많음 (장소에 대한) 정 역사적 문화유적 푸근한 느낌 신앙생활

점을 심각하게 지적하면서, 장소나 과거의 느낌을 상기시키려는 노력은 항상 의식적이고 의도적이며, 여기에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정체성의 추구는 때로 조작된 장소감, 창안된 전통, 상업화된 유산, 시장을 통해 공급된 문화에 의해 좌절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장소의 정치는 다시 보다 거시적인 '공간의 정치'와 결합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될 수 있다.

3. 대구 시민의 사회공간적 '삶의 질'

삶의 질을 나타내는 사회공간적 지표 설정은 위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입지(특히 시설들)에 기초한 기본수요의 충족과 관련 지표들, 생활·생태환경에 근거한 사회적 안전감과 관련된 지표들, 그리고 장소에 근거를 둔 사회문화적 정체성과 관련된 지표들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지표들 외에도 가족의 건강이나 화복과 같은 지표처럼 공간적 성격을 거의 또는 전혀 가지지 않는 지표들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삶의 질' 구성 요소를 표 2와 같이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¹¹⁾, 이들 각각에 해당하는 지표들을 설정해 보았다. 이 지표들에 근거하여 대구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각 지표별 중요성, 만족도, 그리고 변화 등에 관한 인지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¹²⁾

우선 구체적 지표들에 관한 설문 문항들과 동시에 조사된 '삶의 질에 대한 추구'의 의의에 관

한 대구 시민들의 의식을 살펴 볼 수 있다. 사실 본 조사가 시행된 시기는 많은 시민들이 IMF 경제위기에 따라 실직과 소득 감소를 직접 경험했거나 또는 국가 전체의 분위기에서 경제가 최우선으로 강조되었던 때이다. 그러나 본 설문조사에서는 대구 시민들 가운데 상당수가 경제적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이 가치있는 삶을 위하여 지역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삶의 질'을 추구해야 할 단계에 있다고 응답하였다. 즉 '현재 삶의 질을 추구할 단계인가'에 관한 설문 문항에 대해, 응답자들 가운데 17.2%가 '아주 그렇다', 45.1%가 '그런 편이다'라고 답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또는 '그렇지 않은 편이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10.7%에 불과했다(표 3).

이러한 응답은 연령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소득별로는 다소 차이를 드러내었다. 즉 소득수준이 300만원 이상인 고소득층에서는 '아주 그렇다' 및 '그런 편이다'라고 답한 비율이 71.1%로 매우 높았고, 또한 1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에서도 상대적으로 '아주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한 경우를 합치면 다른 소득계층들과 비슷하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대구 시민들은 현시점에서 삶의 질 추구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은 IMF 경제위기의 극복에서도 시민들의 삶의 질이 희생되지 않아야 할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하게 추구되어야 한다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하겠다.

표 4는 위에서 제시한 사회공간적 요소들에 따

표 3. 삶의 질을 추구해야 할 단계인지의 여부

구분	전체	아주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응답자 수 (%)	319 (100)	55 (17.2)	144 (45.1)	84 (26.3)	29 (9.1)	5 (1.6)	2 (0.6)	
연령	20대	46 (100)	8 (17.4)	22 (47.8)	11 (23.9)	5 (10.9)	0 (00.0)	0 (00.0)
	30대	104 (100)	19 (18.3)	49 (47.1)	24 (23.1)	9 (8.7)	3 (2.9)	0 (00.0)
	40대	96 (100)	16 (16.7)	45 (46.9)	28 (29.2)	7 (7.3)	0 (00.0)	0 (00.0)
	50대 이상	73 (100)	12 (16.4)	28 (38.4)	21 (28.8)	8 (11.0)	2 (2.7)	2 (2.7)
소득	100만원 이하	50 (100)	11 (22.0)	18 (36.0)	15 (30.0)	3 (6.0)	3 (6.0)	0 (00.0)
	100-200만원	153 (100)	21 (13.7)	71 (46.4)	41 (26.8)	16 (10.5)	2 (1.3)	2 (1.3)
	200-300만원	77 (100)	13 (16.9)	37 (48.1)	21 (27.3)	6 (7.8)	0 (00.0)	0 (00.0)
	300만원 이상	38 (100)	9 (23.7)	18 (47.4)	7 (18.4)	4 (10.5)	0 (00.0)	0 (00.0)
	무응답	1 (00.0)	1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표 4. 사회공간적 삶의 질 요소들의 중요성 인지

요소	지 표	아주 중시	중시 하는 편	보통	중시 하지 않는 편	거의 중시 하지 않음	무응답	지표 평균 점수	요소 평균 점수	순위
비공 간적	식구 및 친척들 간에 화목하다	29.8	41.7	26.3	1.6	0.6	0.0	74.6	77.4	2
	식구들이 건강하다	45.5	32.0	20.4	2.2	0.0	0.0	80.2		1
입지 (시설)	직장이 안정되고 소득이 높다	21.0	27.3	35.7	10.0	5.0	0.9	62.5	56.8	11
	행정서비스가 잘 되어 있다	6.3	22.3	51.1	16.6	3.4	0.3	52.9		15
	병의원 시설이 잘 되어 있다	8.2	32.9	43.3	11.6	3.8	0.3	57.6		13
	각종 복지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7.5	32.0	30.4	21.0	8.2	0.9	52.5		16
	시장이 가깝고 편리하다	15.7	38.6	31.3	9.4	5.0	0.0	62.7		10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얻기 쉽다	6.6	26.6	42.6	17.6	6.3	0.3	52.5		17
생활 환경	교육여건이 좋다	16.3	42.0	28.8	6.9	6.0	0.0	64.0	63.1	8
	주택사정이 좋다	12.5	43.3	37.3	5.6	0.9	0.3	65.3		7
	여가생활을 하기 좋다	7.5	27.3	42.9	15.7	6.3	0.3	53.6		14
	교통이 편리하다	21.9	39.2	25.7	9.4	3.4	0.3	66.8		5
	범죄가 거의 없다	24.1	33.2	25.7	12.2	4.7	0.0	65.0		6
	자연환경이 깨끗하다	16.3	39.8	29.5	9.7	4.4	0.3	63.6		9
장소 (문화)	이웃과의 유대관계가 좋다	16.3	42.9	36.4	3.4	0.6	0.3	67.8	54.5	4
	친구 또는 친근한 사람이 많다	18.8	41.4	35.1	2.8	1.9	0.0	68.1		3
	정기 들었다	13.5	32.9	40.1	10.0	3.1	0.3	61.0		12
	유명한 역사적 문화유적이 많다	1.3	11.0	37.0	31.7	18.8	0.3	36.2		20
	푸근한 느낌을 가진다	5.0	25.1	48.0	16.3	5.3	0.3	52.1		18
	신앙생활을 하기 좋다	8.2	14.4	29.8	29.5	17.9	0.3	41.5		19

라 선정된 20개 지표들에 대한 대구시민들의 중요성의 인지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¹³⁾ 여기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응답자들은 삶의 질(즉 '살기 좋음')의 인식 기준으로서, 대구 시민들은 비공간적 지표들이라고 할 수 있는 식구들의 건강과 식구·친척들 간 화목을 1, 2위로 매우 중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삶의 질은 어떤 다른 요소들 보다도 응답자 개인을 일차적으로 둘러싸고 있는 가족들의 신체적 안전 및 친밀성과 최우선으로 관련된다고 하겠다.

삶의 질에서 공간적 차원을 가지는 요소 및 지표들을 살펴보면, 우선 입지와 관련하여 지역내 직장(또는 소득원)의 입지와 관련된 지표로서 '직장안정과 높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와 등위(11번째)를 보이고 있음은 다소 의외라고 할 수 있다. 그 외 지표로 시장의 접근성이 다소 높지만 행정서비스, 의료시설, 복지시설 및 정보통신 시설 등의 입지에 대한 중요성 인지는 전체 지표들 가운데 중하위로 나타나고 있다. 생활 및 생태환경 요소와 관련된 지표들은 교통 편리, 범죄 없

음 등이 각각 5위, 6위를 차지하면서 상대적으로 중상위 점수와 순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장소 및 지역문화와 관련된 지표들은 크게 양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응답자들은 이웃공동체 생활에 관한 요소들인 친근한 사람이 많음과 이웃과의 유대관계가 좋음을 각각 3, 4위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역사적 문화유적, 신앙생활 그리고 (다소 모호하게 표현되었지만) 지역이 주는 '푸근한 느낌'은 평균점수의 순위가 최하위를 나타내고 있다. 요약하면, 대구시민들은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들 가운데 비공간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가족의 건강과 화목을 제외하면, 사회공간적 친밀성을 전제로 하는 공동체적 관계를 최우선으로 하며, 다음으로 교육·교통·안전·여가·자연환경 등의 생활·생태환경적 요소를 중시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시설 입지와 관련된 요소들을 고려하며, 마지막으로 장소의 역사성이나 문화적 요소를 고려함을 보여주고 있다.¹⁴⁾

사회공간적 삶의 질을 나타내는 요소들에 관한 응답자들의 중요성 인지는 소득계층별로 몇가지

표 5. 사회공간적 삶의 질에서 중시하는 요소들의 소득계층별 평균점수 등급

평균점수	대구시 전체	100만원 이하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만원 이상
사례수	318	50	153	77	38
80-89점	1. 식구 건강			1. 식구건강	1. 식구건강
70-79점	2. 식구·친척화목	1. 식구 건강	1. 식구건강	2. 식구·친척화목	2. 식구·친척화목
			2. 식구·친척화목		3. 교육여건
			3. 친근한 사람		4. 범죄없음
65-69점	3. 친근한 사람	2. 친근한 사람	4. 이웃과 유대	3. 직장안정.	6. 주택사정
	4. 이웃과 유대	3. 식구·친척화목	5. 교통편리	소득높음	7. 교통편리
	5. 교통편리	6. 자연환경		4. 이웃과 유대	8. 친근한 사람
	6. 범죄없음	7. 범죄없음		5. 주택사정	9. 이웃 유대
	7. 주택사정	8. 주택사정			
60-64점	8. 교육여건	4. 이웃과 유대	10. 직장안정.	6. 교육여건	10. 직장안정.
	9. 자연환경	5. 교통편리	소득높음	7. 교통편리	소득높음
	10. 시장여건	6. 정든 곳	11. 시장여건	8. 시장여건	11. 여가생활
	11. 직장안정.	7. 범죄없음	12. 정든 곳	9. 친근한 사람	
	소득높음	8. 주택사정		10. 범죄없음	
55-59점	13. 병의원시설	9. 시장여건	13. 병의원시설	12. 병의원시설	12. 정든 곳
		10. 병의원시설		13. 정든 곳	13. 시장여건
				14. 복지시설	14. 병의원시설
					15. 복지시설
50-54점	14. 여가생활	11. 자연환경	14. 여가생활	15. 행정서비스	16. 행정서비스
	15. 행정서비스	12. 교육여건	15. 행정서비스	16. 푸근한느낌	17. 푸근한느낌
	16. 복지시설		16. 정보, 소식	17. 정보, 소식	17. 정보, 소식
	17. 정보, 소식		17. 푸근한느낌	18. 여가생활	
	18. 푸근한느낌		18. 복지시설		
40-49점	19. 신앙생활	13. 정보, 소식	19. 신앙생활	19. 신앙생활	
		14. 여가생활			
		15. 직장안정.			
		소득높음			
		16. 푸근한느낌			
		17. 행정서비스			
30-39점	20. 문화유적	19. 신앙생활	20. 문화유적	20. 문화유적	19. 신앙생활
		20. 문화유적			20. 문화유적

표 6. 사회공간적 삶의 질 요소들의 중요성 인지에서 지역별 상위 5개 요소들

순위	대구시 전체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수	319	30	40	39	30	50	50	50	30
1	식구건강	식구건강	식구·친척화목	식구건강	식구건강	식구건강	식구건강	식구건강	식구건강
2	식구·친척화목	식구·친척화목	시장여건	식구·친척화목	식구·친척화목	식구·친척화목	교육여건	식구·친척화목	정든 곳
3	친근한 사람	친근한 사람	식구건강	교통편리	교통편리	이웃과 유대	식구·친척화목	이웃과 유대	이웃과 유대
4	이웃과 유대	주택사정	교통편리	시장여건	주택사정	범죄없음	자연환경	친근한 사람	식구·친척화목
5	교통편리	이웃과 유대	친근한 사람	교육여건	친근한 사람 직장소득	직장소득	직장소득	주택사정	범죄없음

표 7. 사회공간적 삶의 질 요소들에 대한 만족도

요소	지 표	매우 만족	비교적 만족	보통	비교적 불만	매우 불만	무응답	지표 평균 점수	요소 평균 점수	순위	
비공간적	가족 및 친척간의 화목	17.9	51.4	27.0	2.5	0.9	0.3	70.8	69.9	1	
	가족 건강	16.6	47.3	31.3	4.4	0.3	0.0	68.9		2	
입지(시설)	일터에서 보수,환경,안전성과 취업기회	0.6	7.8	44.8	34.5	11.6	0.6	37.9	43.6	20	
	행정서비스(관공서, 우체국 등) 여건	5.0	23.8	43.6	22.6	4.7	0.3	50.6		7	
	의료서비스(병원, 약국, 보건소 등) 여건	5.0	23.5	38.6	27.0	6.0	0.0	48.7		10	
	사회복지 시설(노인, 장애인, 재활시설)	1.3	7.8	37.0	37.9	15.7	0.3	35.4		23	
	시장여건(가게, 시장, 백화점 및 가격)	3.8	23.2	38.2	24.5	9.7	0.6	46.8		12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신시설과 기회	1.3	14.4	43.3	31.7	8.8	0.6	42.0		17	
생활환경	주거생활(주택안전, 위치, 실내시설 등)	4.4	35.1	48.3	10.3	1.6	0.3	57.6	46.9	5	
	교육시설 및 수준	2.8	21.6	46.7	22.3	6.0	0.6	48.3		11	
	여가, 문화시설(영화관, 체육시설 등)	1.9	8.8	36.1	36.7	15.7	0.9	36.2		22	
	교통여건	6.6	23.8	42.3	17.6	9.4	0.3	50.3		8	
	범죄로부터의 안전	1.6	11.9	48.6	27.3	10.3	0.3	42.0	46.2	18	
	깨끗한 물	2.8	19.1	38.9	31.0	7.8	0.3	44.6	45.4	15	
	맑은 공기	4.1	23.8	31.0	26.6	14.4	0.0	44.3		16	
	쓰레기 처리 및 자원재활용	2.8	20.7	42.0	27.6	6.6	0.3	46.4		13	
주변의 산과 강 등 자연환경	5.6	18.2	37.9	32.0	6.0	0.3	46.4	14			
장소(문화)	이웃 등 동네 여건	3.8	28.8	53.9	11.3	2.2	0.0	55.2	60.5	6	
	이웃간(사회적) 관계	8.2	38.9	46.4	6.0	0.3	0.3	62.2		4	
	친구 및 친근한 사람	10.7	42.9	40.1	4.78	1.6	0.3	64.1		3	
	종교시설	5.0	17.6	52.0	19.4	5.0	0.9	49.6	49.0	9	
	지역의 문화 및 역사적 유적	0.6	5.3	42.0	35.1	16.3	0.6	34.8		40.3	24
	지역 축제	1.6	7.2	41.1	34.2	15.0	0.9	36.5			21
	공원, 거리환경, 도시미관	0.9	8.8	50.8	28.5	10.7	0.3	40.3			19

특이한 사항들을 보이고 있다(표 5). 가장 특이한 점은 '직장안정 및 소득높음' 과 삶의 질에 관한 인식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즉 가구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응답자들의 인식에 있어, '직장 안정 및 소득높음'은 15위를 차지할 정도로 그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는 반면, 가구 소득이 200~300만원인 고소득층에서는 이 요소에 대한 중요성 인지도가 3위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높게 인식되고 있다. 그 외에도 '교육여건이 좋음'이나 '친근한 사람이 많음'과 같은 요소들도 소득계층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들이다. 교육여건은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중요성의 인지가 높아지는 반면, 친근한 사람이 많음'이라는 요소의 순위는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또한 사회공간적 삶의 질을 나타내는 요소들의

중요성 인지에서 상위 5개 요소들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식구건강 및 식구·친척화목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1, 2위를 차지했지만, 그의 요소들은 다소 차이가 있다. 주택사정은 중구, 남구 및 수성구에서, 교통편리는 동구, 서구, 남구 등에서, 시장여건은 동구, 서구 등에서, 교육여건은 서구, 수성구 등에서, 범죄없음은 북구, 달서구 등에서, 그리고 직장안정과 고소득은 남구, 북구, 달성군 등에서 그 중요성이 높게 인지되고 있다. 그외에도 특이할 사항으로, 상대적으로 중상위층 밀집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수성구의 경우 자연환경이 4위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농촌지역으로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달성군의 경우는 정든 곳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중요성에 관한 인지에 관한 조사에서 나아가, 실제 각 요소 및 지표별 만족도에 관한 설문조사한 결과

표 8. 사회공간적 삶의 질 요소들의 5년 전과 현재의 비교

요소	지 표	매우 만족	비교적 만족	보통	비교적 불만	매우 불만	무응답	지표 평균 점수	요소 평균 점수	순위	
-	전반적인 생활 여건	2.2	61.4	12.5	19.7	4.1	0.0	59.5	-	-	
비공 간적	가족 및 친척간의 화목	7.8	59.2	22.3	9.7	0.9	0.0	65.8	64.1	1	
	가족 건강	7.2	52.0	23.2	16.9	0.3	0.3	62.3		3	
입지 (시설)	일터에서 보수·환경·안전성과 취업기회	1.6	21.0	31.0	7.0	9.1	0.3	42.3	51.2	22	
	행정서비스(관공서, 우체국등) 여건	2.8	36.1	44.8	15.7	0.6	0.0	56.2		10	
	의료서비스(병원, 약국, 보건소등) 여건	4.4	33.9	40.4	19.7	1.3	0.3	55.1		12	
	사회복지 시설(노인, 장애인, 재활시설)	0.6	19.1	50.2	23.2	6.3	0.6	46.2		18	
	시장여건(가게, 시장, 백화점 및 가격)	3.8	37.9	22.6	27.9	7.8	0.0	50.5		16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신시설과 기회	5.0	16.6	39.5	37.6	5.0	0.0	57.1		8	
생활 생태 환경	주거생활(주택안전, 위치, 실내시설등)	1.9	59.9	24.5	11.6	2.2	0.0	61.9	53.9	4	
	교육시설 및 수준	2.8	36.4	46.4	12.5	1.6	0.3	56.6		9	
	여가, 문화시설(영화관, 체육시설등)	3.1	22.9	53.9	17.6	2.2	0.3	51.8		15	
	교통여건	6.3	43.3	27.0	19.7	3.8	0.0	57.2	50.3	7	
	범죄로부터의 안전	1.3	15.7	40.1	35.7	7.2	0.0	42.1		23	
	깨끗한 물	0.9	20.4	32.9	38.2	7.5	0.0	42.3		21	
	맑은 공기	1.6	17.2	25.1	47.3	8.8	0.0	39.0		24	
	쓰레기 처리 및 자원재활용	1.9	42.9	33.9	19.1	1.9	0.3	56.0	45.7	11	
	주변의 산과 강 등 자연환경	0.3	21.9	39.8	35.1	2.5	0.3	45.6		19	
	장소 (문화)	이웃 등 동네 여건	3.1	41.7	39.2	15.0	0.9	0.0	57.8	61.1	6
이웃간(사회적) 관계		4.1	45.8	36.7	11.9	1.3	0.3	59.9	5		
친구 및 친근한 사람		7.2	55.8	29.8	6.3	0.6	0.3	65.7	2		
종교시설		2.2	25.7	54.2	12.5	2.5	2.8	53.3	54.9	13	
지역의 문화 및 역사적 유적		1.3	13.5	53.3	27.3	4.1	0.6	45.2		20	
지역 축제		1.9	17.6	58.0	18.8	2.8	0.9	49.2		50.2	17
공원, 거리환경, 도시미관		1.6	31.0	47.3	16.6	3.1	0.3	52.9			14

주: 전반적 생활여건 항목은 순위에서 제외함.

를 나타낸 것이 표 7이다. 여기서 지표는 24개로 확대되었는데, 이는 특히 생태환경관련 지표들을 보다 구체화하여, 물, 공기, 쓰레기 및 자연환경으로 구분하였고, 문화부문에서도 '푸근한 느낌'과 같은 지표를 구체화할 수 있는 '이웃 등 동네 여건'으로 바꾸고, 공원 및 도시미관과 같은 경관 지표를 추가했다. 또한 여가생활 및 신앙생활의 경우 지표를 보다 가시화하기 위하여, 각각의 시설과 관련시켜 설문 문항을 작성했다. 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응답자들은 가족·친척 간의 화목 및 가족 건강 등 비공간적 요소에 매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또한 친구 및 친근한 사람, 이웃간 관계(그리고 이웃 등 동네 여건) 등 장소의 사회적 측면에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지표들은 응답자 스스로 삶의 질 요소들 가운데 중요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

는 것들이라는 점에서, 가중치를 고려할 경우 이 지표들이 대구시민들이 인식하는 삶의 질을 상대적으로 높혀주고 있다고 하겠다. 반면, 지역의 문화 및 역사적 유적, 여가·문화시설, 그리고 지역 축제 등 문화적 요소들에 대한 불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의 사회복지 시설, 일터에서 보수·작업환경·안정성과 취업기회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점수가 50점을 넘는 요소들, 즉 만족한다는 응답이 더 많은 항목은 8개로서, 위의 가족 화목과 건강, 그리고 이웃 관계와 여건을 나타내는 지표들과 주거생활, 행정서비스, 교통여건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대구의 교통여건에 관한 일반적 여론과는 다소 상이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나머지 16개 항목들은 평균점수가

50점 이하로 만족보다는 불만족의 비중이 더 높은 것들로서, 공원 거리환경 등의 도시미관, 맑은 공기, 깨끗한 물 등과 같은 환경적 측면, 그리고 범죄로부터의 안전, 통신시설과 접근기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사회공간적 삶의 질을 나타내는 항목들에 대해 5년전과 현재 상황을 비교하여 개선여부에 대한 인지를 조사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응답자들은 설문조사 시점이 IMF 위기가 극도로 심화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5년전과 비교하여 '생활여건이 아주 좋아졌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2.2%, '좋아진 편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61.4%를 차지했다. 반면, '매우 나빠졌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4.1%, '나빠진 편이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19.7%였다. 이러한 응답으로 보면, IMF 위기로 인한 여러 가지 생활여건의 악화가 설문조사를 했던 시점에서는 아직 현실적으로 인지되지 않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설문조사된 24개 지표들 가운데, 평균점수가 50점을 넘는 지표들이 16개로 이 지표들은 좋아졌다고 인지하는 응답자들의 비율이 나빠졌다고 인지하는 응답자들의 비율보다 더 많은 것들이다. 이 지표들 가운데, 가족 및 친척간의 화목, 친구 및 친근한 사람, 가족 건강, 주거생활, 이웃관계, 이웃 등 동네 여건 등 가정생활 및 이웃생활을 나타내는 요소들이 평균 점수 순위 1위에서 6위까지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생활환경분야의 교통 및 교육과 입지 요소라고 할 수 있는 통신, 행정서비스 등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반면 평균 점수가 50점 미만인 지표들은 8개로, 이들은 좋아졌다기 보다는 나빠졌다고 인식하는 응답자들의 비율이 더 많은 것들이다. 특히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산과 강 등의 자연환경과 같은 생태환경적 측면, 범죄로부터의 안전, 일터 여건과 취업기회 등이 나빠졌다고 인식하는 응답자들이 상대적으로 매우 많으며, 그외 지역문화 및 역사적 유적, 지역 축제와 같은 문화적 측면에서의 장소 요소, 사회복지시설도 나빠졌다고 인식하는 응답자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요약하면, 입지 및 생활환경적 요소들은 다소 개선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소와 관련된 문화적 요소는 별 변화가 없고, 생태환경과 관련된 지표들은 나빠진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4. 입지 · 환경 · 장소와 '삶의 질'을 위한 공동체

그 동안 삶의 질에 관한 연구들은 개인의 삶의 질이 사회적 발전, 특히 경제의 양적 성장 수준 또는 물질적 부의 축적 정도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가정해 왔으며, 이러한 점에서 흔히 총량적 경제성장의 크기(대표적인 예로 GNP)를 나타내는 지표들이 삶의 질을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측면에서의 지표들은 인간의 삶의 질을 진정하게 반영하는 척도가 될 수 없다는 점이 이미 오래 전에 지적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도, 국민총생산(GNP)이 일정 수준에 도달한 상황에서, 경제적 또는 물질적 지표를 대신할 수 있는 대안적 지표들의 개발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며, 실제 이에 관한 정책적 및 학술적 관심이 크게 고조되기도 했다(사회발전연구소, 1995; 나라정책연구소, 1995; 한표환, 1995).

삶의 질을 위한 대안적 지표들의 개발은 물론 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물질적 욕구 충족의 증대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물질적 성장과정을 위해 그 대가로 지불된 환경파괴와 오염의 정도,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무시 또는 희생되어 온 인간 생활의 상징적(정신적) 측면들에 초점을 두고 있다. 사실, 선진국에서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에 강조되었던 '삶의 질'에 관한 연구가 다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최근 강조되고 있는 장소의 문제와 정체성, 환경문제 또는 생태적 측면, 그리고 근대성 및 세계화에 대한 반성적 고찰과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¹⁵⁾ 이러한 점에서, GNP와 같은 경제적 지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들 가운데 일부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환경 폐적성의 상실, 그리고 물질적 노동생활에 대신할 수 있는 여가의 가치 등을 계산하여 GNP를 계산하는 '경제후생지표'를 제시하고자 했으며, 또한 최근 많이 논의되고 있는 녹색(green) GNP의 개념도 사실 일반적 경제지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이정전, 1995b). 이러한 대안적 지표 개발의 노력은 기존의 지표가 가지는 한계를 지적

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그 나름대로 의의를 가진다고 할지라도, 기존 지표 연구방법론(특히 신고전적 이론)의 한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안적 지표들의 범주들을 체계적으로 도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최병두, 1996).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갖추어야 할 몇가지 주요한 특성들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첫째, 삶의 질은 매우 다면적이며, 따라서 삶의 질의 내용을 획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보편적 고정 불변의 지표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삶의 질을 대변하기 위한 지표들은 인간 삶의 제 측면들 또는 요소들을 반영할 수 있는 다원성을 가져야 한다. 둘째, 삶의 질은 매우 구체적이며, 따라서 삶의 질의 내용을 측정하기 위해 피상적이고 절대적인 지표는 의미가 없다. 즉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들은 인간 삶의 발전 과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역사적 의미를 가져야 한다. 셋째, 삶의 질은 단지 주어진 조건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삶의 발전이라는 목적을 능동적으로 추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달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삶의 질은 이러한 목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실천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러한 특성들을 고려하여, 삶의 질을 나타내는 사회공간적 요소들, 즉 입지, 환경, 장소와 이들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개별 지표들의 의미를 재구성해 볼 수 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인간의 삶은 공간을 떠나서 이루어질 수 없으며, 따라서 삶의 질을 구성하는 제 측면들은 공간을 구성하는 제 요소들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¹⁶⁾ 물론 앞선 설문조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족의 건강과 화목이라는 비공간적 요소도 삶의 질에서 매우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공간, 그리고 이를 구성하는 요소들로서 입지, 환경, 장소의 개념이 재강조되는 것은 공간이란 인간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장(場)이라는 점이 재인식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인간의 '삶의 질'은 공간(그리고 시간) 및 이를 구성하는 입지, 환경, 장소가 제공하는 구체적 요소들에 의존한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여기서 강조될 수 있는 점은 이러한 3

가지 사회공간적 요소들을 종합하면, 이들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공동체의 의미를 반영하게 된다는 점이다. 공동체는 흔히 다양한 사회적 및 공간적 요소들, 예로 공동의 필요와 목적, 공동선의 추구, 공유된 삶과 문화 또는 가치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의 구체적 내용을 설정하고 실현시키기 위한 실천적 행동과 관련된다(신용하, 1986; 최병두, 1999b). 특히 공동체의 개념 정의에서 강조되는 점은 그 공간적 측면 또는 영역성이다. 즉 공동체는 일상생활 속에서 구성원들 간 비매개적 대면 접촉을 통한 의사소통을 필요로 할뿐만 아니라, 이해관계 또는 생활양식의 동질성에 대한 직접적 확인 등이 가능한 일정한 범위의 생활공간에 기초한다고 하겠다(Smith, 1998).

공동체가 이를 위한 사회적 관계나 행동이 설정되는 지리적 범위 또는 터전으로서 공간 또는 영역성을 가진다는 점은 다소 개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영역성에 기초한 공동체는 전통적 의미로 국지적 장소에 기반한 공동체, 예로 전근대적 공동사회나 또는 오늘날의 농촌 취락이나 소규모 자급경제에 근거한 고립된 사회를 전제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 다른 한편, 오늘날과 같이 교통·통신기술의 발달로 거리마찰이 극소화되고 경제·정치적 상호행위가 세계화된 사회에서 공동체, 특히 공동체의 국지적 영역성은 더 이상 의미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Davides and Herbert, 1993; Amin, 1997; Amin and Grahms, 1997).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리학에서 장소의 의미가 강조되고 세계화에 동반되거나 또는 이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국지성(또는 지방성)이 강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는 여전히 공동체의 일반적 의미 그리고 이에 내포된 공간적 차원의 중요성을 강조해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지리학자들에게서 공동체에 관한 직접적 논의가 재개되고 있다. 이들은 공동체의 개념이 일정한 경계가 지워질 수 있는 지리적 공간에 뿌리를 두는 영역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아가 1980년대에 활발했던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간 논쟁뿐만 아니라 장소, 정체성의 정치, 차이의 지리학 등을 강조하면서, 공동체의 개념을 재고찰하고 있다.¹⁷⁾

물론 이러한 공동체의 공간적 차원은 단순히

대면적 접촉과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장소 또는 이해관계나 생활양식의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라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서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공간적 차원을 입지, 환경, 장소로 구분하고, 이들이 가지는 기본적인 성격, 즉 기본수요의 충족, 생태적 안전의 보장, 정체성의 확보, 즉 종합적으로 '삶의 질'의 향상을 공동체가 추구하는 공동목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즉, 삶의 질의 공간적 요소들인 입지, 환경, 장소는 각기 분리된 어떤 요소들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공간, 즉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질을 다원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개념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회공간적 요소들과 삶의 질의 제 측면들을 관련지으면, 입지는 생활기본수요 충족과 관련된 생활기회의 접근, 환경은 생태적 (또는 존재론적) 안전의 보장, 그리고 장소는 정체성의 확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이와 같이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들로서 입지, 환경, 장소는 모두 공동체적 삶에서 요구되는 기본적 측면들 및 그 구체적 내용물들과 관련된다고 하겠다.

삶의 질을 추구하는 공동체에서, 기본수요의 입지는 경제적 활동의 물질적 결과로서 나타나며, 상품의 생산·유통시설들이나 행정 및 기타 시설 등과 같은 물리적, 사회적 하부구조의 형태로 분포하면서 입지들 간의 관계로 일정한 공간구조를 구성한다. 반면 생활·생태환경은 한편으로 생산과 생활을 위한 물질적 조건으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적 쾌적성이나 안전감 그리고 경관의 심미성과 같은 상징적 조건이 된다. 정체성의 확보와 관련된 장소는 물리적 배경을 전제로 한다고 할지라도, 개인과 공동체가 그 장소와 관련된 역사적 경험 및 의미부여, 친밀감, 애착 등으로 그 내부인들에 의해 공유되는 사회문화적 상징적 실체로서 존재한다. 이와 같은 삶의 질의 사회공간적 요소들은 공동체 구성의 기본적 조건이지만, 오늘날 일정한 공간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그 범위를 점점 더 초월하여 생산되고 재생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성을 내포한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체계에서 이러한 요소들은 기본적으로 상품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이 상품으로 제공될 수 있는 가능성은 경제적 및 물질적인 측면에서 기본수요를 제공하는 입지의 경우 가장 용이하다고 할 수 있지만, 반면 사회문화적 상징적 측면에서 정체성의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장소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징 조작과 관광자원화 등을 통해 장소의 상품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어떤 의사적(擬似的) 정체성이 제공되기도 한다(Urry, 1993). 또한 환경적 측면에서도 오코너(O'Connor, 1988)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자본주의 사회는 상품화될 수 없는 '생산조건들'까지 마치 상품으로 생산될 수 있는 것처럼 경제(즉 자본축적 과정)에 편입시킴으로써 그 모순을 심화시킨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최근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는 세계화과정은 국지적 삶의 질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회공간적 구성요소들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킴으로써 새로운 사회공간적 갈등을 만들어 내고 있다. 예로, 기본수요에의 접근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갈등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최근에도 산업공간의 재구조화 과정으로 인한 입지체계의 재편과정에서 새로운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⁰⁾ 뿐만 아니라 환경비용의 화폐적 부담이나 환경적 위험에 대한 사회심리적 부담을 둘러싸고 발생하고 있는 환경적 갈등은 오늘날 첨예한 사회공간적 현안이 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 새롭게 도입·확산되는 사회문화적 생활양식들은 기존의 생활양식과의 긴장 또는 마찰을 빚어내고 있고 있으며, 장소 정체성의 왜해로 인한 다양한 병리현상들(과소비, 범죄, 마약 및 정신질환 등)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삶의 질을 구성하는 사회공간적 요소들의 문제성으로 인해 팽배해진 긴장 속에서 지역 주민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자극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게 됨에 따라 사회공간적 갈등을 고조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회공간적 갈등은 이의 해소와 더불어 삶의 질을 고양시킬 수 있는 공동체적 삶을 위한 새로운 정치를 요구하고 있다.

삶의 질을 둘러싼 새로운 사회공간적 문제는 단지 특정한 분야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생산관계와 그 환경 그리고 직업안정 등을 포함한 생산

조건과 다양한 집합적 소비재 그리고 지역 문화 등 일상적이고 현장관련성을 가지는 모든 영역에 걸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공간적 갈등은 이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개인, 집단 또는 기관들에게 심각한 문제들을 유발하며 또한 지역 사회 전반적으로 혼란을 가져오거나 심지어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갈등은 삶의 질을 구성하는 사회공간적 요소들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즉,

“‘삶의 질’ 요소는 근본적으로 일상적이고 현장 관련성이 깊은 탓에, 지역공동체적 조절과 중재가 긴요하다. 오늘날 ‘삶의 질’ 조건은 생산의 영역과 분리된 소비영역의 문제만이 아니고, 생산관계와 그 환경 그리고 직업안정 등을 포함한 생산조건과 문화, 자연환경, 교통, 주거, 교육, 의료 등의 집합적 소비의 모든 영역에 걸친 문제이다. … 이런 뜻에서 오늘날 ‘삶의 질’ 요구는 사회발전과정 전반의 ‘질적 전환’을 촉구하는 운동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실천에는 종래의 국가복지 체제의 ‘거시조절’ 장치가 능히 할 수 없던, 훨씬 더 면밀하고 근접한 조절중재를 하는 지역사회적 ‘미시조절’ 장치와 조직이 필요하다”¹⁹⁾

즉 ‘삶의 질’ 요구는 사회발전과정 전반의 ‘질적 전환’을 촉구하는 운동이며, 또한 동시에 “세계경제, 세계문화가 우리의 [지역공동체적] 일상생활에 대한 무차별한 충격을 완화해 줄 새로운 장치”로서 기능하게 된다(권태준, 1996). 이러한 점에서,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이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실천적 전략은 궁극적으로 세계화된 사회속에서 새로운 공동체적 삶을 추구한다고 하겠다.

5. 결론

인간의 삶은 시·공간을 벗어나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삶의 질은 불가피하게 사회공간적 요소들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삶의 질을 구성하는 사회공간적 요소들은 현실 세계의 각 영역들, 즉 물질적, 생태적, 상징적 영역들에 상응하여 입지, 환경, 장소라는 3가지 개념들로 범주화될 수 있다. 이들은 삶의 질의 구체적 측면들, 즉 기본수

요에의 접근, 생태적 안전의 보장, 그리고 공동체적 정체성의 확보와 관련된다고 본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을 구성하는 이러한 3가지 사회공간적 요소들은 종합적으로 공동체를 의미한다. 공동체는 그 자체로서 영역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회공간적 요소들을 전제로 한다. 즉 공동체의 구성에서, 입지는 물질적 기본 욕구의 충족, 또는 경제·정치적으로 제공되는 기본 활동이나 시설에의 접근이라는 점에서 고려된다. 환경은 생존과 생활을 위해 필수적인 물질적 수단들과 심미적 경관을 제공함으로써 환경적 또는 존재적 안전을 보장하는 사회공간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장소는 일상적 사회공간관계에서 이루어진 친밀감과 소속감 그리고 이를 통해 형성된 공동체 의식 등에 의해 형성되는 정체성 확보를 위한 사회공간적 요소이다.

이러한 3가지 사회공간적 요소들의 구체적 내용들을 지표로 하여, 대구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은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들 가운데 비공간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가족의 건강과 화목을 가장 중시했으며, 이들을 제외하면, 장소에 기초한 사회공간적 친밀성을 최우선으로 하며, 다음으로 교육·교통·안전·여가·자연환경 등의 생활·생태환경적 요소를 중시하고, 그 다음으로 시설 입지와 관련된 요소들을 고려하며, 마지막으로 장소의 역사성이나 문화적 요소를 고려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응답자들은 가족·친척 간의 화목 및 가족 건강 등 비공간적 요소에 매우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으며, 또한 친구 및 친근한 사람, 이웃간 관계 (그리고 이웃 등 동네 여건) 등 장소의 사회적 측면에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반면, 지역의 문화 및 역사적 유적, 여가·문화시설, 그리고 지역 축제 등 문화적 요소들에 대한 불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외 사회복지 시설, 일터에서 보수·작업환경·안정성과 취업기회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삶의 질에 내포된 사회공간적 요소들에 대한 중요성 인지와 만족도는 앞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측면들을 중시하고 또 보다 만족하도록 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중요한 점은 삶의 질

향상은 외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실천적 노력, 즉 삶의 질을 고양시키기 위한 공동체적 생활정치에 의해 달성된다. 공동체적 생활정치는 입지와 관련된 기본수요의 충족, 환경과 관련된 존재론적 안전감의 보장, 그리고 장소와 관련된 정체성의 확보 등을 통한 공동체적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한다.

註

- 1) 본 논문은 학술진흥재단에서 지원한 중점지원 연구과제, '삶의 질: 공간환경'의 일부분으로 연구된 것에 공동체에 관한 논의를 추가한 것이다. 이 연구과제는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서 발간한 『사회과학연구』, 제14권 1호(1996), 제15권 2호(1997), 제16권 3호(1998)에 게재되어 있음.
- 2) 사회학자들인 Friedland R. and Boden D.(1994)에 의하면, 이러한 공간과 시간의 개념에 대한 대표적 이론가들로서 Pierre Bourdieu, Michel Foucault, Anthony Giddens, 그리고 David Harvey를 들 수 있다. 이들에 Henri Lefebvre가 분명 추가될 수 있다.
- 3) 다른 한편, 이러한 3가지 개념들 외에도 주요한 공간적 용어로 경관·토지·지역·그리고 공동체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을 개념적으로 구체화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 4) 입지에 관한 연구의 변화과정 및 최근 연구 동향으로 Smith N.(1989), Hayter(1998) 등 참조.
- 5) 이러한 점에서 최근 '생태학'(ecology)은 자연 생태계에 대한 연구라기 보다, 매우 사회과학적 및 철학적 내용을 가지게 되었다. 한편 용어사용에 있어, (자연)환경은 사회와 일정한 관계를 가지면서 이에 대응하는 점에서 '생태'라는 용어보다도 '환경'이라는 용어가 선호되기도 하며, 반면 인간은 생태계의 기본 요소라는 점에서 '외적 조건'으로서의 '환경'이라는 용어보다는 때로 '생태'라는 용어가 더 선호되기도 한다. 후자의 대표적인 인물로 Beck U. and Giddens A.(1994) 등 참조.
- 6) '환경적 (또는 생태적) 안전'의 개념에 관해 Beck U.(1995, 특히 제 2장) 참조. 한편 '존재론적 안전감'이라는 용어는 Giddens A.(1981: 최병두 역, 1991, 193)에서 차용되었다. 심미적인 측면에서 환경이 가지는 이러한 의미에 관해, Dovey K.(1989) 등 참조.
- 7) 장소와 정체성 간의 관계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로서, Keith and Pile(1993), Carter et al.(1993), Yager(1996) 등 참조. 장소에 관한 보다 최근의 연구들에서 강조되는 이러한 '정체성'의 문제는 사회이론 일반에서는 근대성에 관한 논의와 관련되기도 한다. Lash and Friedman(1992) 참조.
- 8) 정체성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자아 정체성과 사회적 차원에서의 집합적(또는 공동체적) 정체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장소와 관련된 정체성에 관한 논의는 자아 정체성 및 집합적 정체성 양자 모두를 고려하고 있다. Entrikin (1996) 참조. 또한 전자의 사례로 Sack(1993), 후자의 사례로 Day and Murdoch(1993) 참조.
- 9) 그러나 근대성의 전개, 특히 자본주의의 발달과 더불어, 장소 역시 공간과 마찬가지로 자본축적의 메카니즘에 의해 지배되게 되었지만, 장소는 이러한 지배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규범적 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강조된다. Ley D.(1989) 등 참조.
- 10) 즉 "문화는 장소 판매의 과정에서 '경제적 이득' (투자를 내부로 끌어들이으로써)의 재원으로서는 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일구어내는 도구로서 자본에게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Philo and Kearns(1993).
- 11) 앞선 논의에서 환경적 측면에서의 존재론적 안전감은 주로 생태환경과 관련시켰으나, 설문조사의 분석에서는 교육, 여가, 범죄 등의 생활환경도 이 범주에 포함시켰다.
- 12) 설문조사는 1998년 3월 5일부터 3월 16일 사이에 구, 군별 인구수에 비례하여 추출된 대구시민 319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응답자들의 인지도를 합계하여 평균 점수화(아주 중시 = 100, 중시하는 편 = 75, 보통 = 25, 거의 중시하지 않음 = 1)하고 이에 근거하여 다시 순위화했다.
- 13) 동일한 설문지로 대구뿐만 아니라 안양, 광주,

진주, 남해지역에도 조사되었다. 설문조사 결과 남해지역에서는 항목별 중요성의 평가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였으나, 그외 지역들에서는 약간의 순위 차이는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유사했다. 최태룡(1998) 참조.

- 14) 삶의 질에 내재된 사회공간적 요소들은 이의 충족이나 의미에 있어 일정한 순차성을 가진다 (최병두, 1998). 즉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기본적인 물질적 욕구 충족이 최우선이지만, 정체성의 확보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 삶의 궁극적 목적은 단순한 물질적 욕구 충족 보다는 정신적 자아 실현에 있다고 한다면, 사실 기본수요의 접근과 관련된 입지 문제는 표피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반면 쾌적한 환경은 존재론적 안전감 및 경관의 심미성과 관련하여 보다 심층적이며, 나아가 정체성 확보를 위한 장소의 문제는 사회적 자아의 실현을 위해 가장 심층적이고 공동체적 삶과 직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15) 특히 이러한 측면에서 삶의 질에 관한 관심의 재개는 일본에서도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D' Antonio, Sasaki, and Yonebayashi(1994) 등 참조.
- 16) 이와 관련하여, Cutter(1985)는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3가지 상이한 측면들, 즉 환경에 대한 주관적 평가, 장소 이미지, 그리고 '객관적' 지표들에 대한 인지적 평가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여기서 제시된 방법에 대한 논의로서 Rogers et al.,(1989) 참조.
- 17) Environment and Planning A(1999, vol.1)에 게재된 공동체에 관한 특집 논문들, 특히 Silk (1999), Smith(1999) 참조.
- 18) 오늘날 사회공간적 갈등은 자본주의적 경제발전이나 세계화 과정에 따른 삶의 질의 사회공간적 구성요소들의 특성 변동이 어떤 부정적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또한 동시에 이러한 구성요소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우선적 필요나 욕구의 영역이 달라졌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빈번한 예로서, 세계적 분업체계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입지의 개발은 한편으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새로운 취업·소득기회를 제공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태환경의 파괴·오염을 심화시키게 됨에 따라, 입지 개발과 환경보전을 둘러싼 사회공간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19) 권태준, 1996, 10.

文 獻

- 구동희, 1997, "대도시 공간, 환경의 재구조화와 삶의 질 - 장소마케팅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5(2),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33-166.
- 나라정책연구회, 1995, "삶의 질과 사회개발" (자료집).
- 문순홍 편역, 1995,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한 생태전략, 나라사랑.
-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1995, 사회발전연구, 창간호.
- 신용하, 1986, 공동체이론, 문학과 지성.
- 이무용, 1997, "도시개발의 문화전략과 장소마케팅", 공간과 사회, 8, 197-231.
- 이정전 편, 1995a,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 박영사.
- 이정전, 1995b, 녹색경제학, 한길사.
- 최병두, 1995, "환경문제의 사회공간적 불평등," 도시연구, 창간호, 29-74.
- _____, 1996, "사회환경적 삶의 질의 의의와 지역차," 환경과 사회, 9, 7-21.
- _____, 1998, "삶의 질로서 공간환경과 생활정치," 사회과학연구, 16(3),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7-46.
- _____, 1999c, "동아시아의 위기와 대안적 지리학," 공간과 사회, 12, 66-107
- _____, 1999a, 환경갈등과 불평등, 한울.
- _____, 1999b, "도시공동체 복원을 위한 아파트 주민운동," 한국도시연구소 창립 5주년 기념심포지움 자료집.
- 최태룡, 1998, "삶의 질 지표 분석," 사회과학연구, 16(3),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47-70.
- 한국불교환경연구원, 1998, 생태위기시대의 공동체운동.

- 한국도시연구소, 1999, 도시에서 지역환경공동체 만들기 조사연구.
- 한표환, 1995, 도시지표의 개발 및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제 193권.
- Amin, A. and Grahma S., 1997, The ordinary city,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22, 411-429
- Amin, A., 1997, Placing globalization, theory, *Culture and Society*, 14, 123-137.
- Beck, U., 1994, *Ecological Politics in the Age of Risk*, Cambridge Polity.
- , 1995, *Ecological Enlightenment: Essays on the Politics of the Risk Society*, Humanities Press, New Jersey.
- , Giddens, A. and Lash, S., 1994, *Reflexive Modernization*, Stanford Univ. Press.
- Bryant, B.(ed.), 1995, *Environmental Justice: Issues, Politics, and Solutions*, Island Books, Washington D. C.
- Bullard, R. D., 1994, *Unequal Protection: Environmental Justice and Communities of Color*, A Sierra Club Book, San Francisco.
- Carter, E., Donald, J. and Squires, J.(eds), 1993, *Space and Place: Theories of Identity and Location*, Lawrence & Wishart, London.
- Cutter, S. L., 1985, *Rating Places: A Geographer's View on Quality of Life*, American Geographers, Resource Publication in Geography, Washington, D.C.
- D' Antonio, W., Sasaki, M. and Yonebayashi, Y. (eds.), 1994, *Ecology, Society and the Quality of Social Life*, Transaction Publishers, New Brunswick and London.
- Davies, W. K. D. and Herbert, D., 1993, *Communities Within Cities: An Urban Social Geography*, Belhaven Press, London.
- Day, G. and Murdoch, J., 1993, Locality and community: coming to term with place, *The Sociological Review*, 41, 82-111.
- Dovey, K., 1989, The quest for authenticity and the replication of environmental meaning, Seamon, D. and Mugerare, R.(eds.), *Dwelling, Place and Environment: Towards a Phenomenology of Person and World*,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 Duncan, J., 1993, Sites of representation: Place, time and the discourse of the Other, in Duncan, J. and Ley, D. (eds), *Place/Culture/ Representation*, Routledge, London, 39-56.
- Entrikin, J. N., 1996, Place and region 2,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0(2), 215-221.
- Foucault, M., 1986, Of other spaces, *Diacritics*, 16, 22-7.
- Friedland, R. and Boden, D.(eds.), 1994, An introduction, *Now Here: Space, Time and Modernity*, Univ. of California.
- Genocchio, B., 1995, Discourse, discontinuity, difference: the question of 'other' spaces, in Watson, S. and Gibson, K.(eds.), *Postmodern Cities and Spaces*, Blackwell, London, 35-46.
- Giddens, A., 1981, *A Contemporary Critique of Historical Materialism*, London, 최병두 역, 사적 유물론의 현대적 비판, 나남.
- , 1990, *The Consequence of Modernity*, Polity, London, 이윤희 외 역, 포스트모더니티, 한국사회학연구소.
- , 1991, *Modernity and Self-Identity*, Polity Press, Oxford.
- Hajer, M. J., 1995, *The Politics of Environmental Discourse: Ecological Modernization and the Policy Process*, Oxford Univ. Press, Oxford.
- Harvey, D., 1973, *Social Justice and the City*, Arnold, London, 최병두 역, 사회정의와 도시, 종로서적.
- , 1993, From space to place and back again: reflections on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in Bird, J., Curtis, B., Putnam, T. , Robertson, G. and Tichner, L.(eds.), *Mapping the Future: Local Cultures, Global Change*, Routledge, London; 박영민 역, "공간에서 장소로, 다시 반대로: 포스

- 트모더니티의 조건에 대한 성찰”, *공간과 사회*, 5, 32-71.
- , 1996, *Justice, Nature and the Geography of Difference*, Blackwell, London.
- Hay, C., 1994, Environmental security and state legitimacy in O’ Connor, M.(ed.), *Is Capitalism Sustainable? Political Economy and the Politics of Ecology*, New York, Guilford, 217-31.
- Hayden, D., 1996, *The Power of Place: Urban Landscapes and Public History*, Cambridge MA. MIT Press.
- Hayter, R., 1998, *The Dynamics of Industrial Location*, Wiley, Chichester, New York.
- Jackson, T., 1996, *Material Concerns: Pollution, Profit and Quality of Life*, Routledge, London.
- Jameson, F., 1991, *Postmodernism or The Cultural Logic of Late Capitalism*, Duke Univ. Durham.
- , 1992, *The Geopolitical Aesthetic*, Bloomington, Indiana Univ.
- Kearns, K. and Philo, C.(eds.), 1993, *Selling the Place: The City as Cultural Capital, Past and Present*, Pergamon Press.
- Keith, M. and Pile, S.(eds.), 1993, *Place and the Politics of Identity*, Macmillan, London.
- Keith, M. and Pile, S., 1993, Introduction part 1: the politics of place and Introduction part 2: the place of politics, in Keith, M. and Pile, S.(eds.), *Place and the Politics of Identity*, Macmillan, London.
- Lash, S. and Friedman, J.(eds.), 1992, *Modernity and Identity*, Oxford, Blackwell.
- Lefebvre, H., 1991, *The Production of Space*, Blackwell, London.
- Ley, D. and Samuels, M.(eds), 1979, *Humanistic Geography*, Maaroufa, Chicago.
- Ley, D., 1989, Modernism, postmodernism and the struggle for place, in Agnew, J. and Duncan, J.(eds), *The Power of Place*, London, Unwin Hyman, 44-65.
- Massey, D., 1992, Politics and space/time, *New Left Review*, 196, 65-84, 도린 매시, “정치와 공간/시간”, *공간과 사회*, 7, 109-136.
- Merchant, D.(ed.), 1994, *Ecology: Key Concepts in Critical Theory*, Humanities Press, New Jersey.
- O’ Conner, J., 1988, Capitalism, nature, socialism: a theoretical introduction, *Capitalism, Nature, Socialism*, vol.1, 이강원 역, “자본주의, 자연, 사회주의: 이론적 서설”, *공간과 사회*, 3, 33-62.
- Philo, C. and Kearns, K., 1993, “Culture, history, capital: a critical introduction to the selling of places,” in Kearns and Philo (eds.), *Selling the Place: The City as Cultural Capital, Past and Present*, Pergamon Press.
- Redcliff, M., 1985, *Development and the Environmental Crisis*, 강현수 외 역, 발전과 환경위기, 한울.
- Relph, E., 1976, *Place and Placelessness*, Pion, London.
- Rogerso, R. J., Findlay, A. M. and Morris, A. S., 1989, Indicators of quality of life: some methodological issues, *Environment and Planning A*, 21, 1655- 1666.
- Sack, R. D., 1993, The power of place and space, *Geographical Review*, 83, 326-29.
- Silk, J., 1999, Guest editorial: the dynamics of community, place and identity, *Environment and Planning A*, 31(1), 5-17.
- Simonsen, K., 1996, What kind of space in what kind of social theory ?,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0 (4), 494-512.
- Smith, D. M., 1977, *Human Geography: A Welfare Approach*, Arnold, London.
- , 1998, How far should we care ? On the spatial scope of beneficence,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2, 15-38.
- , 1999, Geography, community and morality, *Environment and Planning A*, 31(1), 19-35.

- Smith, N., 1989, Uneven development and location theory: towards a synthesis, Peet, R. and Thrift, N.(eds.), *New Models in Geography*, 1, Unwin Hyman, London, 142-163.
- Soja, E. W. and Hooper, B., 1993, The space that difference makes, in Keith, M. and Pile, S.(eds.), *Place and the Politics of Identity*, Mcmillan, London, 183-205.

- Tuan, Y-F., 1977, *Space and Place: The Perspective of Experience*, Univ.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 Urry, J., 1993, *Consuming Places*,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 Yager, P.(ed.), 1996, *Geography of Identity*, The Univ. of Michigan Press, Ann Arbor.